

소규모자영업의 경제적·교육적 지원 선택의 영향요인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and Educational Supports Selection of Small Self-employed Business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홍성희*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 Hong, Sung-Hee

〈목 차〉

I. 문제의 제기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분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economic and educational supports selection of small self-employed business.

A sample of 321 was selected from self-employed workers living in Daegu. For data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determinants of the economic supports selection in self-employed business were father's working experiences in self-employed business, taking employees or not in business, having housing ownership or not, and as well as the amount of starting capital.

2. The determinants of the educational supports selection in self-employed business were self-employer's working experience as self-employed before or not, and empowerment with self-employed work.

* 주저자, 교신저자: 홍성희 (hsh@kmu.ac.kr)

Key Words : 경제적 지원(the economic supports in self-employed business), 교육적 지원(the educational supports in self-employed business), 세력화(empowerment with self-employed work)

I.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통계에 의하면 2003년의 경우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4.9%에 달해(통계청, 2003) 노동시장에서 자영업분야의 고용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자영업주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류재우·최효영, 2000) 가운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의 창업이 직업적 대안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영업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양적 비중이 커짐에 따라 자영업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은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소득창출의 효과를 가져와 개별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거시적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자영업은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과 관련된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완충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영업의 직업으로서의 지속성과 안정성, 자영업 집단의 내부적 구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자영업을 취업대안으로 선택한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가장 많은 자영업자가 집중되어 있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부문에서는 진입과 함께 퇴출의 빈도도 높다(금재호 등, 2003).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과 벤처기업의 창업으로 고학력의 전문직 자영업자가 확산된 반면 저학력·저숙련의 영세자영업자가 여전히 주를 이루어 이들간의 소득과 직업만족도가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최근 들어 경쟁력을 상실한 저숙련

영세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을 중단하거나 신규창업자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으로써 자영업의 증가세가 멈추었으며, 이들의 소득수준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영업의 비중과 소득수준의 감소로 인해 자영업의 고용효과 및 소득창출 기능도 저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자영업이 창업 이후 사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기대수입과 직업으로서의 만족을 창출하는 것은 자영업자 개인이나 국가의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창업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다.

외환위기 이후 1999년부터 정부는 약 1조 9,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자영업의 창업을 지원해왔다(최효미, 2005). 이 시기에 창업한 자영업자의 상당부분은 임금근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출당했거나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들로서, 창업자금지원의 혜택을 받아 별다른 준비 없이 자영업으로 진입한 영세자영업자를 증가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나아가 영세자영업자의 저소득, 낮은 직업만족도로 연결되며 자영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자영업의 창업단계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사업이 지속되고 소득이 안정적으로 창출되는 성장단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자영업의 지원정책으로는 창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정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자영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창업을 지원하는 경제적 정책 뿐 아니라, 창업 후 자영업자가 사업을 정착시키고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창업 후 지원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창업준비단

계에 있는 예비창업자나 창업희망자에게 창업과 자영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들의 개별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상담이 병행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한편 자영업을 시작하는 개인은 창업과정과 자금 확보, 경영 전반에 대한 사전정보 탐색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자금지원제도와 창업상담 및 창업준비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창업준비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탐색 및 지원은 창업단계에서 뿐 아니라 성장단계에서도 중요하고 필요한 자원이 되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자세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자영업의 경제적 지원 및 교육적 지원이 자영업의 운영과 성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경제적, 교육적 지원의 이용실태 및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지원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통해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제적 지원 및 교육적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조건에 적합한 지원유형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입안 및 수행자들에게는 각 지원정책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및 사업체의 특성을 파악하여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의 세부조항을 결정하며 창업단계에서의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자영업을 정착시키고 성장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교육적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자영업운영실태가 파악됨으로써 지금까지 지원된 창업자금지원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영업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40%에 가까운 특징을 보인다. 자영업자의 증가는 기술의 진보, 경영시스템의 변화, 세계화 등 거시적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영업의 비중은 일본의 15.9%, 미국의 7.4%, 대만의 23.6%(OECD, 2002; 금재호 등, 2003에서 재인용) 등과 비교해 볼 때 외국에 비해 매우 높으며,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영세하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의 수 및 비율의 변화추세를 보면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비농전산업에서 1990년대에 걸쳐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다소 높아지다가 외환위기 이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임금근로자의 축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2004년에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4.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가 1.9% 증가한데 반해, 비임금근로자는 0.9% 감소하였다. 비임금근로자의 감소는 2003년부터 2년째 계속되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였던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200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영업의 감소추세는 지나친 경쟁과 사업실패에 따른 소득수준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자영업자의 근로소득 추세를 보면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가 2003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최효미, 2005). 또한 실질근로소득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특히 2001년과 2002년의 실질소득 상승률은 각각 18.3%, 13.1%로, 임금근로자의 상승률에 비해 매우 높았으나, 2003년 들어 감소세를 보인다(<표 1> 참고).

<표 1> 평균소득 변화 추이(비농 전산업)

(단위: 만원, %)

| | 전 체 | | 자영업자 | | 임금근로자 | |
|------|-------|-------------|-------|-------------|-------|-------------|
| | 명목소득 | 실질소득 | 명목소득 | 실질소득 | 명목소득 | 실질소득 |
| 1998 | 119.6 | 123.3(-) | 110.6 | 114.0(-) | 111.3 | 114.7(-) |
| 1999 | 111.3 | 113.8(-7.7) | 113.3 | 115.9(1.7) | 103.1 | 105.5(-0.8) |
| 2000 | 119.7 | 119.7(5.2) | 116.5 | 116.5(0.5) | 109.0 | 109.0(3.3) |
| 2001 | 136.9 | 131.5(9.9) | 143.4 | 137.8(18.3) | 120.0 | 115.3(5.8) |
| 2002 | 150.7 | 141.0(7.2) | 166.5 | 155.8(13.1) | 131.0 | 122.5(6.2) |
| 2003 | 163.1 | 147.3(4.5) | 171.0 | 154.5(-0.8) | 145.4 | 131.3(7.2) |

주 : () 안은 전년대비 실질소득 상승률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2005), 한국노동패널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것이 곧 모든 자영업자의 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높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자영업집단 내에서의 소득분포 및 소득편차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10분위 근로소득지표를 임금근로자와 비교해본 결과 자영업자 중 최상위 집단의 근로소득은 469만 6천원으로 임금근로자 최상위 집단의 315만 4천원에 비해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영업 최하위집단의 근로소득은 임금근로자의 70% 수준에 불과한 26

만 6천원이었다. 따라서 자영업집단 내의 소득격차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8년에 비해 2003년으로 올수록 점차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2> 참고).

이와 같이 자영업자의 근로소득과 10분위 소득분포를 볼 때, 지식기반사회에서 벤처기업 및 창업의 확산에 따라 자영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자영업자들은 인적 자본의 한계수익율이 높은 고학력, 고능력자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반면 대부분의 자영

<표 2> 자영업자의 분위별 평균소득(비농 전산업)

(단위: 만원)

|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1분위 | 265.8 | 301.2 | 271.2 | 424.0 | 452.4 | 469.6 |
| 2분위 | 188.4 | 177.8 | 190.3 | 194.3 | 243.7 | 239.7 |
| 3분위 | 153.7 | 152.2 | 150.0 | 177.5 | 187.1 | 180.8 |
| 4분위 | 118.3 | 118.3 | 134.0 | 144.1 | 164.2 | 165.4 |
| 5분위 | 103.1 | 102.2 | 100.7 | 123.1 | 140.3 | 135.5 |
| 6분위 | 99.9 | 97.2 | 100.0 | 96.1 | 113.8 | 107.0 |
| 7분위 | 78.7 | 77.4 | 83.7 | 87.8 | 93.5 | 90.3 |
| 8분위 | 61.0 | 60.3 | 68.3 | 65.1 | 83.0 | 79.7 |
| 9분위 | 47.4 | 48.1 | 47.8 | 46.9 | 55.8 | 53.2 |
| 10분위 | 23.9 | 23.6 | 20.9 | 20.8 | 27.0 | 26.6 |

출처 : 최효미(2005),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업자들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들로서 소득수준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임금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소득의 감소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금재호 등(2003)은 한국노동패널 2001년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주의 만족도가 '임금 또는 소득', '취업의 안정성', '일의 내용' 등 모든 항목에서 정규직 임금근로자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자영업주의 가장 강점으로 알려져 온 '취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임금근로자보다 낮았는데, OECD국가의 경우 자영업주의 만족도가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고학력·고기술을 가진 근로자들이 자신의 기회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나, 아직도 대부분의 자영업주들은 만족도의 측면에서 임금근로자에 비해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영업집단 내부의 직업만족도 격차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1995년 한국가구패널조사와 1998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를 비교한 김우영·김응규(2000)는 1995년에는 두 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1998년에는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 간의 직업만족도에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직업만족도를 구성하는 5개 영역 모두에서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주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1995년에서 1998년으로 오면서 자영업주의 직업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에 증가한 자영업자들의 상당 부분은 임금부문에서 밀려난 후 자영업부문에서 취업기회를 찾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 이처럼 비자발적인 선택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된 사람들의 직

업만족도는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과 같이 자영업 종사자의 수와 비중, 근로소득의 분포, 직업만족도의 현황을 분석해 볼 때 자영업집단의 소득과 직업만족도는 내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한 저숙련, 저학력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으로부터 퇴출하거나 이직하는 경향이 최근 들어 나타남으로써 자영업 내부의 안정성이 우려되며, 자영업의 고용 및 소득창출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실업해소책으로 자영업창업을 지원해왔다. 이 시기에 창업한 자영업자의 상당부분은 임금근로에서 퇴출당한 조기퇴직자들이거나 취업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 실업자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영업에 대한 계획과 준비 없이 진입한 영세 자영업자를 증가시켜 소득분배의 악화를 초래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창업지원 뿐 아니라, 창업 후 자영업체가 사업을 정착시키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자영업의 경제적, 교육적 지원유형

자영업의 지원유형은 대상과 지원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 지원대상의 측면에서는 창업자 지원, 예비창업자 지원, 기존 자영업자의 운전자금 및 경영 지원, 실업자·저소득층·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이 있다. 지원내용 면에서는 자금지원이 주축을 이루나 이외에 교육지원 및 행정적 지원이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영업 지원정책 및 제도는 대부분 그 명칭이 '창업지원정책'으로 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뿐 아니라 창업 후 사업을 정착시키는 초기단계에 있는 기존자영

업자들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대상 면에서는 일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을 제외하고는 각 지원정책별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원내용을 중심으로 유형을 알아본다.

1) 경제적 지원

(1) 소상공인창업지원자금

상시종업원이 10인 이하인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에 종사하거나, 상시종업원이 5인 이하이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개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소상공업을 창업하는 자 및 창업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기존 사업체를 인수, 이전, 확장, 업종변경, 시설 개선을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창업 또는 경영상담을 신청하면 신청인의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대출취급은행에 추천을 한다. 취급금융기관에서는 신용대출, 또는 채권보전 절차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진다. 이는 2,000억원의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되며, 사후관리 차원에서 참가업체별 총투자비 중에서 일정비율의 자기자금 부담능력, 예를 들어 기적립된 예적금, 주식·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과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을 검토한다.

(2) 생계형창업 특별신용보증

소규모 사업자가 창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1억원 이내의 특별보증을 지원하여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등 생계형 창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금의 용도는 사업장 취득 및 임차자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원재료 구입비 등 일체의 부대비

용을 포함한 창업초기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 의한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업종이며 지원한도는 동일기업 당 5억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3억원 이내), 지원기간 5년 이내, 대출금리 연 8.25% 내외이다. 지원기관으로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대학·우수 연구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창업자, 발명가, 특허권, 실용신안권의 보유자, 해외유학생, 해외기업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거나 졸업자 중 창업자, 그리고 기술성이 있고, 창업한지 3년 이내인 기업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기술평가센터에서 신청자의 기술성, 사업성, 타당성 및 신용보증 가능금액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금융기관에 용자를 추천해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창업자금 지원은 담보대출, 신용 또는 보증부 대출을 병행한다.

2) 교육적 지원

(1) 창업보육센터

보육센터는 일반 창업보육센터와 인터넷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여성창업보육센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자금력 등 사업능력이 미약한 예비창업자와 신규창업자들에게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자금·경영·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주자격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며, 개별보육실, 공동이용 공간과 설비 등의 시설 지원 이외에도 세무, 회계, 마

케팅 등 경영분야 및 시험, 분석, 설계, 제작 등 기술분야에 대한 지도, 연수를 포함한다.

인터넷 보육센터는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부족한 창업희망자에게 전산 및 통신시설이 완비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전문교육, 컨설팅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곳이며 기능강화를 위해 수시로 자문이 가능한 사이버 보육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여성창업보육센터는 여성예비창업자와 창업 6개월 이내인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창업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여성창업자일 경우 우선권이 있다.

(2) 창업강좌

창업강좌관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중소기업창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대학(원)생, 연구원, 여성·기술창업자 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관련 전문 지식과 정보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창업강좌 개설비용을 지원한 대학(교), 연구소, 중소기업 관련기관에서 개설·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강좌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대학 등에서 개설한 일반창업강좌와 SOHO 창업 등 특화된 전문창업강좌, 대학생 대상의 창업스쿨,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대학(원)생, 연구원 등 예비벤처창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최고 수준의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하는 창업전문과정인 Techno-MBA과정 등이 있다. 개설과목으로는 필수과목인 창업과 기업가정신, 창업절차(사업계획수립포함), 회계 및 세무 실무, 자금조달 및 금융지원, 정부지원제도, 창업성공 사례와 개설기관에 따라 자유로이 개설하는 특화과목들이 있다.

(3)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1999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창업 및 성장을 위한 개별 상담, 업종별 전문가(소

상공인 자원봉사단, 경영기술지원단 등)와의 연결과 정부정책·선진기술 등 각종 경영·기술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며, 인허가, 자금지원 안내, 기술 및 경영기업 지도, 서류작성법 등을 지도해준다.

이상과 같이 자영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제도의 내용을 볼 때 창업자금 및 운전자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영업의 창업자 및 운영자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나 실직자, 청년실업자, 여성 등 금융자본과 인적 자본이 취약한 계층에게는 창업 자금의 조달이 가장 큰 제약조건이 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과 교육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영업의 경쟁 심화와 기술적 환경의 급변에 따라 창업 및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정보 습득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 상담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 상담 지원은 자영업의 창업단계 뿐 아니라 안정적인 정착과 사업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3. 자영업 지원 선택의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교육적 지원의 이용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하여 변수와 영향력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자영업의 지원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자영업의 창업과 자영업자의 특성에 대한 문헌을 통해 영향요인을 추출하고자 한다.

유동성제약(liquidity constraint)에 관한 연구들은 자영업의 진입과 운영과정에서 자본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자영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본제

약으로 인해 진출하지 못하고(Blanchflower & Oswald, 1998), 유산이나 다른 자산이 있는 경우 자영업 진출이 더 용이하다는 것이다. Evans와 Jovanovic(1989)은 부유한 사람일수록 자영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냈으며, Holtz-Eakin(1994) 역시 기업가들이 필요한 자본을 외부에서 조달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본 부족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 즉 자영업의 생존에도 역시 자본에 대한 접근 용이성, 즉 유동성제약이 문제가 된다. Blanchflower와 Oswald(1992)의 분석에서는 유동성제약이 1인 소유기업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자영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창업자본금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특히 소규모 자영업의 창업 및 운영과정에서는 외부자본의 조달이 어려우므로 자신 및 가족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 자기자본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창업자본금, 가계소득 및 자산, 자영업소득 이외의 타소득원 등이 자영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투입될 것이며, 이러한 자기자본이 부족할 경우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고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가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로서 Cromie와 Johns(1983)는 기업가들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보다 강한 성취동기, 성취가치, 인내심, 자신감 등을 보인다고 제시하였다. McClelland(1967)는 성취욕구를 기업가를 설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기업가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성으로는 내적인 통제성향을 들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운명은 운이나 우연이 아닌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성격특성을 말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기업가들

은 사업에 대한 강한 성취욕구나 자심감과 같은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이 자영업의 운영과정에서 선택과 결정이 필요할 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기업가적 특성을 배양하는데 가족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다. 가족 중에서도 Gasse(1985)는 특히 아버지가 사업을 할 경우 그 자녀는 기업가가 되고자 하는 높은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였다. Fairlie(1999)의 연구에서는 흑인이 자영업자가 될 확률이 백인의 1/3의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아버지의 자영업 비중이 적은 흑인의 경우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 있다.

네트워크는 기업가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자산으로, 자영업자들은 창업 및 운영과정에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가족, 친지 등의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거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용하는 능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남성들은 학연, 지연 등의 네트워킹으로 자영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나 여성들에게는 통합적, 조직적 네트워킹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여성기업인의 경우 기업활동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최자경, 2001).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분야는 제조업과 달리 소규모의 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므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도·소매업, 가사서비스업 부문은 생계형 영세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부문이다(황수경·정진호, 2005). 따라서 산업부문에 따라 자영업의 창업 및 운영과정에서 경제적 지원 및 교육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자경(2001)은 여성창업자의 경제적, 교육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학력, 성향 등의 개인적 특성과 초기 창업자금, 연간순이익, 창업지속년수, 만족도 등의 창업배경요인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자영업자들이 창업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가의 여부는 학력과 초기투자자금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고졸 이하의 집단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많았고, 대졸집단에서는 받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집단의 초기투자자금이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많았다. 교육적 지원의 여부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적 지원을 받은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에 대한 열의와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또한 교육적 지원을 받은 창업가의 성향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여성들이 더 많은 교육기회를 활용하고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성지미·안주엽(2003)은 창업훈련프로그램은 기업가정신 및 자영업관련 기술의 습득을 매개로 자영업의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창업훈련프로그램의 이수여부는 창업동기, 자영업에 대한 태도 등과 함께 기업가정신의 기본이 되며 이러한 요인들이 자영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하면서 창업과정에서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자영업관련연구들을 볼 때 자영업자들은 사업에 대한 기업가적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은 가족의 배경, 즉 부모의 자영업경험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배경 이외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로부터 자금이나 정보를 지원받는 능력과 기회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 자

본조달능력은 자영업의 진입을 위한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의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자영업자의 기업가로서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배경 특성, 자영업의 성격과 자본조달능력 등에 따라 자영업의 운영과정에 관한 의사결정과 외부로부터의 자금 지원 및 기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달라질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교육적 지원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자영업의 지원경향을 파악하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자영업의 창업 및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자영업의 경제적, 교육적 지원 선택은 관련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자영업의 경제적, 교육적 지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의 창업 및 성장단계에서 경제적, 교육적 지원이 자영업의 성공과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지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개인적 특성, 가족특성, 자영업특성을 구성하였다(<표 3> 참고).

개인적 특성은 자영업자의 인적 자본을 형성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자영업경험 유무와 기업가적 성향과 관련있는 성역할태도, 세력화 등으로 구성하였다. 성역할태도는 성에 따른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역할기대로서, 여

<표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 변수 | 정의 및 측정방법 |
|---------------------|--|
| 종속변수 | |
| 경제적 지원 선택 | 창업 및 운영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 1=유 0=무 |
| 교육적 지원 선택 | 창업 및 운영과정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적 지원을 받은 경험 1=유 0=무 |
| 독립변수 | |
| 개인적 특성 | |
| 성별 | 1=남 0=여 |
| 연령/ 연령 ² | 만 연령(세)/ 연령 ² |
| 교육수준 | 교육년수(년) |
| 자영업경험 | 현 자영업 이전에 타 자영업 운영 경험 1=유 0=무 |
| 성역할태도(6) | 규범적 성역할에 대한 태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
| 세력화(6) | 현자영업에 대한 의사결정권 및 주도권의 소재정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
| 가족 특성 | |
| 부 자영업경험 | 부의 자영업경험 유무 1=유 0=무 |
| 부부동업 여부 | 현 자영업의 부부동업 여부 1=동업 0=비동업 |
| 자영업 특성 | |
| 창업자본금 | 현 자영업 창업당시의 자본금총액(만원) |
| 가계총자산 | 자영업가계의 총자산(천만원) |
| 가계총소득 | 자영업가계의 연간총소득(만원) |
| 타소득 유무 | 자영업소득 이외의 소득원 유무 1=유 0=무 |
| 자가 유무 | 주택의 소유상태 1=소유 0=비소유 |
| 산업 | 현 자영업의 해당산업 1=도소매, 숙박음식업 0=기타 |
| 종업원 유무 | 현 자영업의 종업원 고용상태 1=유 0=무 |

()은 문항수임

성 자영업자들은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가사노동자 및 자녀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역할수행에 대한 태도에 따라 자신의 기업활동에 대한 적극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세력화(empowerment)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의 주도권 및 의사결정권의 소재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력화정도에 따라 경제적, 교육적 지원에 대한 정보탐색능력 및 의사결정권이 달라질 것으로 보였다.

가족특성으로는 부의 자영업 경험 유무와 부부동업여부를 선정하였다. 부부 동업인 경우 배우자는 가장 유용한 인적 네트워크이며, 다른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를 넓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특성으로는 창업자금 및 운전자금 조달과 관련된 창업자본금, 가계총자산, 가계총소득, 자영업소득 이외의 타소득 유무, 자가 유무와 자영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종업원유무를 설정하였다. 자영업의 창업 및 운영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자금 확보에 있으므로, 자기자본화할 수 있는 금융자산 및 부동산, 가계소득 등의 충족정도가 외부의 경제적, 교육적 지원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서 소규모자영업을 경영하는 기혼여성 및 기혼남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¹⁾ 연구의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수집하였으며, 설문지 조사는 2004년 2월부터 4월까지 중소기업청 산하 대구 북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조사기간 동안 소상공인지원

센터에 상담을 의뢰한 기혼여성 및 남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300부를 실시하였고,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이 140명을 임의표집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완성된 설문지 총 440부 중에서 응답상태가 부실한 경우와 종업원 수, 월평균 매출액과 수입 등 기업규모 면에서 지나치게 격차가 큰 극단치를 가진 설문지를 제외하였다. 또한 창업 초기의 사업이 불안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창업한지 최소 3개월이 지난 자영업자로 범위를 좁힘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을 321명으로 확정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PC SPSS program(ver. 10.0)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영업의 실태를 빈도와 백분율, t-test 및 χ^2 검증을 통해 파악하였다. 자영업지원 선택의 영향요인은 이항변수이므로 logistic 분석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 중 창업자본금은 경제적 지원 선택에 대한 독립변수로서 작용하기도 하나, 동시에 창업 당시에 경제적 지원을 받음으로서 자본금이 확보될 수도 있다. 즉, 이들의 종속관계를 설정하는데 문제가 있으나,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영업의 창업 및 운영에서 자본금의 역할이 지대한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창업자본금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변수로 판단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전체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약 43세이며, 40대가 40.8%로 가장 많다. 교육연수는 약 13년 정도이며, 고졸자가 37.4%, 대졸자가 35.5%

1) 본 연구에서 소규모자영업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규정에 준하여 상시종업원 10인 이하인 제조업, 판매업, 건설업, 운송업 또는 상시종업원 5인 이하이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업,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소상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21)

| 범주형 변수 | | 빈도 | 백분율(%) |
|---------------|------------|---------|----------|
| 경제적 지원 선택 | 유 | 123 | 38.3 |
| | 무 | 198 | 61.7 |
| 교육적 지원 선택 | 유 | 145 | 45.2 |
| | 무 | 176 | 54.8 |
| 개인적 특성 | | | |
| 성별 | 남 | 153 | 47.7 |
| | 여 | 168 | 52.3 |
| 연령 | 30대 이하 | 118 | 36.8 |
| | 40대 | 131 | 40.8 |
| | 50대 이상 | 72 | 22.4 |
| 교육수준 | 고졸미만 | 36 | 11.2 |
| | 고졸 | 120 | 37.4 |
| | 전문대졸 | 51 | 15.9 |
| | 대졸이상 | 114 | 35.5 |
| 자영업경험 | 유 | 67 | 20.9 |
| | 무 | 254 | 79.1 |
| 가족 특성 | | | |
| 부 자영업경험 | 유 | 115 | 35.8 |
| | 무 | 206 | 64.2 |
| 부부 동업여부 | 동업 | 92 | 28.7 |
| | 비동업 | 229 | 71.3 |
| 자영업특성 | | | |
| 산업 | 도소매, 숙박음식업 | 209 | 65.1 |
| | 기타 | 111 | 34.6 |
| 종업원 유무 | 유 | 155 | 48.3 |
| | 무 | 166 | 51.7 |
| 타소득 유무 | 유 | 165 | 51.4 |
| | 무 | 156 | 48.6 |
| 자가 유무 | 유 | 216 | 67.3 |
| | 무 | 105 | 32.7 |
| 연속형 변수 | | 평균 | 표준편차 |
| 개인적 특성 | | | |
| 연령 | | 43.31 | 8.10 |
| 교육수준(년) | | 13.55 | 2.47 |
| 성역할태도 | | 3.08 | .71 |
| 세력화 | | 3.89 | .53 |
| 자영업 특성 | | | |
| 창업자본금(만원) | | 7284.49 | 12613.11 |
| 가계총자산(천만원) | | 22.39 | 24.95 |
| 가계총소득(만원) | | 3804.38 | 3423.68 |

로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의 분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전에도 자영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가 약 21%를 차지하였고,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본인이 일에 대한 주도권과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력화는 중간수준을 상회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즉 자영업의 장점인 일에 대한 자율성과 융통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가족 중 아버지가 자영업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35.8%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현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28.7%였다.

산업별로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65.1%로 나타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료에서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에 가장 많은 자영업자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가 고용한 자영업자보다 약간 많았다. 창업 자본금은 약 7284만원이며, 부동산을 포함한 가계총자산은 약 2억 2천만원, 연간 가계총소득은 약 3천8백만원 정도이다.

2. 자영업의 창업 및 운영실태

자영업의 창업 및 운영과정에 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경제적·교육적 지원실태, 자영업의 제약사항,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표 5>, <표 6>.

경제적 지원을 받은 횟수는 최대 3회이며, 1회 지원받은 자영업자가 약 38%인 123명, 3회 지원받은 자영업자는 5명이다. 그러므로 약 62%의 자영업자는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기관으로는 은행이 약 47%로 가장 많으며, 보험사·새마을금고·신협 등을 포함한 제 2 금융권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공공기관의 이용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평균지원액은 1회 지원당 약 3000만원에서 9800만원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를 보인다.

교육적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는 145명으로 약 45%에 해당하며, 교육을 받은 기관은 공공기관, 민간기관, 기타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남

<표 5> 경제적 지원 및 교육적 지원 실태

(N=321)

| 지원내용 | | 빈도 | 백분율 | 지원내용 | | 빈도 | 백분율 |
|----------|--------|---------|----------|---------|--------|-------|-------|
| 경제적 지원횟수 | 1회 | 123 | 84.8 | 교육기관 | 공공기관 | 36 | 25.2 |
| | 2회 | 17 | 11.7 | | 민간기관 | 50 | 35.0 |
| | 3회 | 5 | 3.4 | | 기타 | 57 | 39.0 |
| | 계 | 145 | 100.0 | | 계 | 143 | 100.0 |
| 지원기관 | 은행, 농협 | 73 | 59.3 | 교육내용 | 서비스교육 | 24 | 17.6 |
| | 제2금융권 | 35 | 28.5 | | 직업기술교육 | 75 | 55.1 |
| | 공공기관 | 15 | 12.2 | | 창업교육 | 14 | 10.3 |
| | 계 | 123 | 100.0 | | 인터넷교육 | 3 | 2.2 |
| 지원내용 | | 평균 | 표준편차 | 매장관리 | 2 | 1.5 | |
| | 지원액 | | | 영업 및 판촉 | 6 | 4.4 | |
| | 1회 | 4894.84 | 11081.35 | 경영전반 | 12 | 8.8 | |
| | 2회 | 9383.89 | 30084.18 | 계 | 136 | 100.0 | |
| | 3회 | 3020.00 | 3122.82 | | | | |

으로써 자영업자들이 창업과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교육받은 내용 중에서는 직업기술교육이 가장 많았는데, 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이나 기술지원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애로사항 11가지 중 가장 어려웠던 항목은 자금의 대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에 대한 선행연구(금재호 등, 2003; 김유석, 1998)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자금확보 및 조달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지적된 것은 가사노동과의 병행문제였는데, 이는 조사대상 중 여성의 비중이 52%이며 부부가 동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29%에 달하는 대상자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임금근로에 비해 근무 시간이 긴 경향이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자영업과 가사노동의 이중노동 부담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결

과는 최자경(2001)의 연구에서 여성창업자의 창업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가사노동과 사업의 병행으로 인한 이중노동이었던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자영업의 만족도를 5가지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근무내용과 발전가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다. 수입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것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는데, 절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영세자영업자가 많거나 경기 불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만족도는 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자영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변수에 따른 자영업의 경제적, 교육적 지원 선택의 차이

자영업자의 개인 및 가족특성, 자영업특성

<표 6> 자영업의 애로사항 및 만족도

(N=321)

| 자영업 실태 | | 평균 | 표준편차 | 자영업 실태 | | 평균 | 표준편차 |
|-------------|-------------|------|------|------------|----------|------|------|
| 자영업 애로사항 | 관공서출입 | 2.71 | .95 | 자영업 만족도 | 현재수입만족도 | 2.62 | .88 |
| | 은행대출/융자받기 | 3.32 | 1.07 | | 근무시간만족도 | 2.75 | .82 |
| | 종업원확보 | 3.07 | 1.06 | | 근무내용만족도 | 3.14 | .76 |
| | 종업원관리 | 2.99 | .99 | | 근무환경만족도 | 3.12 | .77 |
| | 고객관리 | 3.05 | .90 | | 발전가능성만족도 | 3.14 | .95 |
| | 사업상교제 | 2.87 | 1.00 | | | | |
| | 경영/재무관리 | 2.99 | .90 | | | | |
| | 사회적편견 | 2.68 | .88 | | | | |
| | 집안일병행 | 3.26 | 1.05 | | | | |
| | 원자재/물품구매/공급 | 2.63 | .88 | | | | |
| | 마케팅 | 3.02 | .90 | | | | |

주: 애로사항 : 1=전혀 어렵지 않다, 5=매우 어렵다
 만족도 : 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에 따라 경제적, 교육적 지원 선택에 차이가 있는가를 t 검정 및 χ^2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표 7>, <표 8> 참고).

경제적 지원을 선택한 집단과 선택하지 않은 집단은 창업자본금 및 부의 자영업경험, 종업원 유무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경제적 지원을 선택한 집단의 창업자본금이 선택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많았다. 이는 경제적 지원

을 받은 집단의 초기투자자금이 지원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최자경(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가 자영업을 운영했던 경험을 가진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향이 높았다. 종업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에 비해 경제적 지원을 받은 비율이 높았는데, 종업원

<표 7> 경제적 지원 선택과 자영업의 특성

(N=321)

| 경제적지원 | | 선택함 | | 선택하지않음 | | t값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연속형변수 | | | | | | |
| 연령 | | 43.34 | 8.24 | 43.29 | 8.03 | .58 |
| 교육수준 | | 13.79 | 2.33 | 13.39 | 2.53 | 1.44 |
| 성역할태도 | | 3.08 | 0.71 | 3.08 | .70 | .44 |
| 세력화 | | 3.91 | .54 | 3.89 | .51 | .23 |
| 창업자본금 | | 9844.21 | 18960.37 | 5735.85 | 5713.88 | 2.86** |
| 가계총자산 | | 24.19 | 31.13 | 21.32 | 19.87 | .98 |
| 가계총소득 | | 3642.80 | 2915.73 | 3901.17 | 3698.44 | .65 |
| 경제적지원 | | 선택함 | | 선택하지않음 | | x ² |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 범주형변수 | | | | | | |
| 성별 | 여 | 58 | 47.9 | 110 | 55.0 | 1.51 |
| | 남 | 63 | 52.1 | 90 | 45.0 | |
| 자영업경험 | 유 | 25 | 20.7 | 42 | 21.0 | 1.51 |
| | 무 | 96 | 79.3 | 158 | 79.0 | |
| 부자영업경험 | 유 | 55 | 45.5 | 60 | 30.0 | 7.83** |
| | 무 | 66 | 54.5 | 140 | 70.0 | |
| 부부동업여부 | 동업 | 35 | 28.9 | 57 | 28.5 | .94 |
| | 비동업 | 86 | 71.1 | 143 | 71.5 | |
| 타소득유무 | 유 | 57 | 47.1 | 108 | 54.0 | 1.43 |
| | 무 | 64 | 52.9 | 92 | 46.0 | |
| 자가유무 | 유 | 75 | 62.0 | 141 | 70.5 | 2.48 |
| | 무 | 46 | 38.0 | 59 | 29.5 | |
| 산업 | 도소매, 숙박음식 | 79 | 65.3 | 130 | 65.0 | 1.00 |
| | 기타 | 42 | 34.7 | 69 | 35.0 | |
| 종업원유무 | 유 | 72 | 59.5 | 83 | 41.5 | 9.79** |
| | 무 | 49 | 40.5 | 117 | 58.5 | |

** p < .01

을 고용한 사업체가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규모가 크므로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적 지원 선택은 세력화, 산업, 종업원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교육적 지원을 선택한 집단의 세력화수준이 선택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남으로써 자영업 운영에 있어 주도권과 의사결정권을 보다 많이 가진

자영업자들이 교육과 상담을 더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문에 따라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업 부문의 자영업체는 교육적 지원을 받지 않은 경향이 보다 높았고, 기타 업종의 자영업체에서는 교육적 지원을 받은 경향이 보다 높았다. 금재호 등(2003)이 전문성이 낮고 영세사업자가 많은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부문으로의

<표 8> 교육적 지원 선택과 자영업의 특성

(N=321)

| 연속형변수 | 교육적지원 | 선택함 | | 선택하지않음 | | t값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연령 | | 43.46 | 7.52 | 43.18 | 8.57 | .31 |
| 교육수준 | | 13.59 | 2.49 | 13.51 | 2.45 | .26 |
| 성역할태도 | | 3.02 | .75 | 1.13 | .67 | -1.42 |
| 세력화 | | 3.98 | .57 | 3.83 | .48 | 2.61* |
| 창업자본금 | | 7856.00 | 17073.54 | 6813.64 | 1709.66 | .74 |
| 가계총자산 | | 25.06 | 31.15 | 20.16 | 18.02 | 1.74 |
| 가계총소득 | | 3751.48 | 2765.62 | 3847.80 | 3889.01 | -.25 |
| 범주형변수 | 교육적지원 | 선택함 | | 선택하지않음 | | x ² |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 성별 | 여 | 69 | 47.6 | 99 | 56.3 | 2.39 |
| | 남 | 76 | 52.4 | 77 | 43.7 | |
| 자영업경험 | 유 | 25 | 17.2 | 42 | 23.9 | 2.11 |
| | 무 | 120 | 82.8 | 134 | 76.1 | |
| 부자영업경험 | 유 | 57 | 39.3 | 58 | 33.0 | 1.39 |
| | 무 | 88 | 60.7 | 118 | 67.0 | |
| 부부동업여부 | 동업 | 45 | 31.0 | 47 | 26.7 | .73 |
| | 비동업 | 100 | 69.0 | 129 | 73.3 | |
| 타소득유무 | 유 | 75 | 51.7 | 90 | 51.1 | .01 |
| | 무 | 70 | 48.3 | 86 | 48.9 | |
| 자가유무 | 유 | 99 | 68.3 | 117 | 66.5 | .117 |
| | 무 | 46 | 31.7 | 59 | 33.5 | |
| 산업 | 도소매, 숙박음식 | 87 | 60.0 | 122 | 69.3 | 3.30* |
| | 기타 | 58 | 40.0 | 53 | 30.7 | |
| 종업원유무 | 유 | 78 | 53.8 | 77 | 43.7 | 3.21* |
| | 무 | 67 | 46.4 | 99 | 56.3 | |

* p< .05

진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것과 같이 전문적인 기술이나 준비없이도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이나 상담 지원의 필요성도 적게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업원을 둔 자영업체의 경우 교육적 지원을 받은 경향이 보다 높은 반면 종업원을 두지 않은 업체에서는 교육적 지원을 받지 않은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종업원 관리 및 교육을 위해 교육적 지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4. 자영업의 경제적, 교육적 지원 선택의 영향요인

경제적 지원과 교육적 지원을 선택하는 자영업자의 개인적 특성, 가족특성 및 자영업특성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표 9>, <표 10>과 같다.

경제적 지원 선택에는 부의 자영업 경험과 종업원 유무, 자가 유무, 총자본금이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아버지가 자영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가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에 비해 창업 및 운영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향이 있으며, 종업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향이 있었다. 또한 집을 소유하지 못한 자영업자가 소유한 자영업자에 비해 경제적 지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자본금은 경제적 지원 선택에 정적 영향을 보였다.

경제적 지원 선택에는 자영업자의 연령과 교육수준, 자영업경험 등의 인적 자본 특성과 개인적 성향 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가족특성변수인 부의 자영업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업가적 특성을 배양하는데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아버지가 사업을 할 경

우 그 자녀는 높은 성취동기를 부여받는다고 한 Gasse(1985)의 연구나 아버지의 자영업 운영이 가족의 배경으로서 자영업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Fairlie(199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표 9> 경제적 지원 선택의 영향요인

| 변 수 | 교육적 지원 선택 (N=321) | |
|-----------------|-------------------|--------|
| | B | S.E. |
| 개인적 특성 | | |
| 성별(여) | .368 | .297 |
| 연령 | .043 | .133 |
| 연령 ² | .000 | .060 |
| 교육수준 | .013 | .060 |
| 자영업경험 | -.241 | .330 |
| 성역할태도 | -.279 | .199 |
| 세력화 | -.244 | .255 |
| 가족특성 | | |
| 부자영업경험(무) | .671 | .279* |
| 부부동업여부(비동업) | -.069 | .304 |
| 자영업특성 | | |
| 창업자본금(log) | .474 | .164** |
| 가계총자산(log) | -.019 | .216 |
| 가계총소득(log) | .000 | .000 |
| 타소득유무(무) | -.149 | .290 |
| 자가유무(무) | -.636 | .319* |
| 산업 | .162 | .285 |
| 종업원유무(무) | .553 | .283* |
| 상수 | -4.473 | 3.326 |
| Log Likelihood | 386.06 | |

* p< .05 **p< .01

한편 부의 자영업경험 이외에 자가유무, 총자본금, 종업원유무 등 주로 기업의 자본조달능력 과 기업규모가 경제적 지원을 결정하는 요 인임을 알 수 있다. 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경 우는 영세한 자영업자로서 자기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대출 및 공공기 관의 자금 지원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것으

로 보인다. 총자본금이 클수록, 또한 종업원을 고용한 자영업체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업체에 비해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되는데, 창업 및 운영과정에서 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적 지원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개인적 특성, 가족특성 및 자영업특성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이전 자영업 경험유무와 세력화로 나타났다<표 10>.

<표 10> 교육적 지원 선택의 영향요인 (N=321)

| 변 수 | 교육적 지원 선택 | |
|-----------------------|-----------|-------|
| | B | S.E. |
| 개인적 특성 | | |
| 성별(여) | .478 | .284 |
| 연령 | .263 | .141 |
| 연령 ² | -.003 | .002 |
| 교육수준 | -.056 | .058 |
| 자영업경험 | -.713 | .319* |
| 성역할태도 | -.269 | .193 |
| 세력화 | .498 | .250* |
| 가족특성 | | |
| 부자영업경험(무) | .258 | .271 |
| 부부동업여부(비동업) | .561 | .296 |
| 자영업특성 | | |
| 창업자본금(log) | -.041 | .147 |
| 가계총자산(log) | .205 | .208 |
| 가계총소득(log) | .000 | .000 |
| 타소득유무(무) | .247 | .283 |
| 자가유무(무) | -.282 | .311 |
| 산업 | -.428 | .272 |
| 종업원유무(무) | .415 | .275 |
| 상수 | -6.650 | 3.433 |
| Log Likelihood | 361.59 | |

* p< .05

즉, 자영업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교육적 지원을 선택하였으며, 세력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적 지원을 받

은 경향을 보였다.

자영업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창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교육적 지원을 선택하여 도움을 받고 간접적인 경험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력화수준이 높을수록 자영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다 주도적인 의사결정권을 가능하게 하므로 교육적 지원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주도적인 선택과 참여를 결정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영업자의 가족특성변수나 자영업특성변수들은 교육적 지원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영업자가 창업 및 운영과정에서 경제적, 교육적 지원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특성, 자영업특성의 변인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지원 선택의 차이 및 지원 선택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교육적 지원 선택과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볼 때 자금조달을 위한 대출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경험하면서도 공공기관의 경제적 지원 선택율은 낮았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정책과 지원 자금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적 지원 내용 중 직업기술교육이 가장 많았는데, 이러한 교육내용은 자영업의 창업 및 운영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자영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애로사항 중 이중노동부담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던 결과를 볼 때, 이중노동부담이 큰 여성자영업자나 종업원을 두지 못한 1인 영세자영업

자, 근무시간이 긴 서비스업 자영업자 등의 복지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경제적 지원을 받은 집단은 창업자본금이 많거나 아버지가 자영업경험이 있거나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였다. 창업자본금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실시한 logistic 분석에서도 유사한 변수들이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자본금의 영향력 또한 입증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경제적 지원에는 개인의 인적자본 특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 자본금이나 종업원 고용 등 자영업체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나 자가유무와 같이 자본조달과 관련된 요인 등이 결정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육적 지원을 받은 집단은 세력화수준이 높았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이나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체는 교육적 지원을 받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영세사업자가 많은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부문이나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정보와 네트워크의 공유, 기술적 환경변화에의 적용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경쟁력을 더욱 상실할 것으로 우려된다. 즉, 소규모자영업체가 영세성과 비전문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육적 지원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교육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육적 투자를 도입하지 않거나 지연시킬 경우 경쟁력을 상실하여 영세성을 면하기 힘들거나 퇴출위기에 처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적 지원에 대한 logistic 분석 결과는 세력화 이외에 자영업경험이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는데, 이는 교육적 지원을 선택하는 데는 인적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전반적으로 볼 때 경제적 지원과 교육적 지원의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은 각기 다른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적

지원을 선택하는 데는 자영업자의 인적자본 특성보다는 주로 사업체의 규모 및 자본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총자본금 및 종업원 유무가 경제적 지원과 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종업원 및 자본금 등 사업체의 외적 규모가 큰 업체가 더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음으로써 경제적 지원의 혜택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영세한 사업체의 경우 경제적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교육적 지원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적자본 및 개인적 성향으로서 교육적 지원은 경제적인 필요성보다는 자영업자의 개인적 성향 및 자질에 따라 선택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면 정책적으로는 소규모 자영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나, 자영업의 성장과정에서 기존의 경험과 관련된 지식의 확산 및 시장정보, 기업정보의 제공, 필요한 훈련의 실시 및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자영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원정책을 수행하는 지원기관 및 상담기관에서는 자영업의 창업과 지원을 위한 상담을 통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참여를 유도하며, 경제적 지원과 교육적 지원을 연계하여 동시에 선택하도록 하는 통합적 지원서비스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제적 지원을 받은 자영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후 자영업체의 매출 및 수입, 자영업자의 정책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제시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 제한을 두는 피드백의 과정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정부가

실시하는 자영업의 지원정책이 보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문적으로도 지금까지 시행된 경제적 지원 및 교육적 지원 등의 수혜가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지원정책의 효과에 따라 지원정책의 지속 및 보완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재호·류재우·전병유·최강식(2003),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2) 김애실(2001), 여성기업의 현황과 지원제도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집, 33, 299-316.
- 3) 김우영(2000), 취업형태의 비교우위와 자영업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노동경제 논집, 23, 1-34.
- 4) 김우영·김응규(2001),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 비교분석, 중소기업연구, 23(3), 29-54.
- 5) 김유석(1998),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 창업환경, 창업기업의 특성이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6) 김성호(2000),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경영안정 지원, 회계와 세무, 2000년 6월호, 43-67.
- 7) 김순미·김혜연(1998), 성인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및 노동이동사의 상호관련성, 대한가정학회지, 36(1), 65-79.
- 8) 김순미·홍성희(2000),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와 기업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7), 13-26.
- 9) 류재우·최호영(1999), 우리나라의 자영업 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2(1), 1-32.
- 10) 문유경·성지미·안주엽(2002), 여성 자영업자의 현황과 대책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11) 성지미·안주엽(2003),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및 주관적 평가의 결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12) 정영금(2001), 소규모 가족기업의 경영실태진단,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 13) 지용희(1998), 창업지원제도의 국제비교와 창업활성화 방안, 경영논집, 9, 485-199.
- 14) 차성란(2001), 가족기업경영 가정의 직업 및 가정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9), 121-135.
- 15) 최문경·이명진(2005), 자영업, 선택인가? 한국과 미국, 한국사회학, 39(1), 21-51.
- 16) 최자경(2001), 여성창업기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17) 최효미(2005), 자영업자의 근로소득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60-72.
- 18) 황수경·정진호(2005), 최근 노동시장 동향과 2005년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1권, 1-21.
- 19) 한국노동연구원(2004), 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 20) 홍경아(2002), 가족기업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1) Bates, T.(1990), Entrepreneur Human Capital Inputs and Small Business Longev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2.
- 22) Blanchflower, D. & A. J. Oswald(1998), What Makes an Entrepreneu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 26-60.
- 23) Evans, D. S., Boyan J(1989), An Estimated Model of Entrepreneurial Choice under Liquidity

-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 24) Fairlie R. W.,(1999), The Absence of the African-American Owned Business: An Analysis of the Dynamics of Self-Employ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17.
- 25) Grasmuck, S., R. Espinal(2002), Market Success of Female Autonomy? Income, Ideology, and Empowerment among Microentrepreneurs in the Dominican Republic, *Gender & Society*, April, 231-255.
- 26) Holtz-Eakin, D.(1994), Sticking It Out: Entrepreneurial Survival and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2(1).
- 27) Javanovic, B.(1982), The Selection and Evolution of Industry, *Econometrica*, 50.